

##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의 자유

1974년도 세계 YMCA와 YWCA가 한 마음과 한뜻으로써 드리는, 기도의 주제는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의 불안이 온 인류의 마음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힘써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의 인간적인 좌절을 넘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결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지도자들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희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무력과 허탈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나라가 안전 지대에 정착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불안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적인 정치 역학관계나 경제적인 불황도 우리의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박한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불안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우상을 숭배시키려고 하는 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최근에 벌어진 우리 국내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국가적인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으려는, 민권운동(民權運動)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우려와 투쟁을 가끔 <정치적>인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비난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에는 국정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로마서 13장 1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성구를 인용하면서 현 정권의 신성한 권위에 순종할 것을 국민에게 종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러한 종용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 정권과 일본 군국주의가 기독교 신학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성서 해석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의 우리 정치 체제의 본질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표현입니다. 권위로서의 권력과 단순한 힘으로서의 권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힘을 과시하는 권력은 힘 없는 자

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를 인력으로 환산하여 소위 인력 수출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명령과 복종, 이끄는 사람과 이에 굴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권위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코 인간을 수단으로 삼거나 단순한 힘으로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권위로서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되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백성의 뜻을 거슬리면서 자기의 권력 자체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를 포기하고 힘으로써 백성을 굴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의 질서요 특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면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어떤 통치자나 지배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뜻으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2차 대전 중에 독일이나 일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이나 독일의 어용 신학자들 그리고 군국주의 권력에 밀착되었던 교회지도자들이 이러한 그릇된 성서해석을 하였던 사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실들을 우리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를 비참한 전쟁으로 몰아 넣고 말할 수 없

는 비극을 연출케 했던 과거의 군국주의적 성서 해석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되풀이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 착오가 아니면 성서의 본래의 뜻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로밖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자들의 권위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써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권세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신격화하는 데 쓰여진다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중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존권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없는 생존권이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존하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는 일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 생존이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권 없는 생존권이 있을 수 없고 또 생존권 없는 기본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 속에서 그 생존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도 단순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고 산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쟁 위협성보다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의 가치관과 윤리적 감각의 마비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신적인 것을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도 큰 자유가 있고 작은 자유가 있다

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크기는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자유를 추구하는 몸가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회구하게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본래적인 회구는 어떠한 힘으로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 회구 속에서 인간은 창조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유를 회구한다는 것은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구태어 자유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 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실만을 들여다 보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결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을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내면적으로 회구하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 본, 꿈과 같은 비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는 일을 냉소주의자들은 환상이니 꿈이니 하고 비웃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시되 백성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

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나 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치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믿음의 동지를 기억합니다.

저들이 오늘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지켜 보실 것이며 언젠가는 그들의 고난이 열매를 맺어서 보람있는 고난이었다고 칭송을 받는 날이 오고야 말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의 우리는 실새 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야 하며 바울 권면에 따라 선을 행하며 서로 도와주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이며 이에 응답하는 일이 오늘이 나라에서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1974. 11. 14. YWCA)